



가톨릭 안동

교구 50주년 다짐 실천의 해
“기쁨 넘치는 하느님 나라를 일군다!”

제79호 2020년 7월 5일(가해) 연중 제14주일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신심 미사)



「한국 순교자의 별」 김만용 프란치스코 작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마태오 10,22)

제1독서 역대기 하권 24,18-22

화답송 ◎ 주님,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손상오 신부 곡



제2독서 로마서 5,1-5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

복음 마태오 10,17-22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문경 점촌동 본당 보좌
송정현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죽고 난 뒤에 제자들이 겪을 고 통들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특히 가장 가까운 형제, 자매, 부모로부터 배척받고 배 신 당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 중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 하느님을 맘에 품고 고난의 끝에 닿을 때 받게 될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일 우리들은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를 기념하며 미사를 봉헌합니다. 김대건 신부님은 최초의 한국인 사제로서 한국 모든 사제들의 선배이십니다. 어린 시절 다른 두 명의 소년과 함께 중국 마카오로 건너가 사제가 되기 위해 공부한 뒤 무수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당시 박해가 심했던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1846년 6월 선교 사제들의 입국을 돕다 관아에 잡혀 고초를 격게 됩니다. 여러 차례의 모진 문초에도 신부님의 신앙과 기개는 흔들림이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신부님의 굳은 의지는 그가 옥중에 쓴 편지에서 잘 드러납니다. 배교하라는 관장의 호통에 ‘나는 천주교가 참된 종교이므로 받들입니다. 나를 영원한 행복으로 인도하기에 내게 배교하라고 하는 것은 쓸데 없는 짓입니다.’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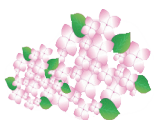
고 대답합니다. 또한 형장에서는 ‘내가 죽는 것은 그분을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 영원한 생명이 바야흐로 시작되려 합니다. 여러분도 사후에 행복하려면 천주를 믿으시오.’라고 말한 뒤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제물이 됩니다.

자랑스러운 순교자들의 후예인 우리들도 이 같은 올곧은 믿음을 배워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말고 아버지의 영께 믿고 맡기라고 가르칩니다. 자신의 가르침대로 제자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성인의 발자국을 따라 세상 속에 하느님의 정의를 세우는 노력을 해나갑시다.

예수님과 김대건 신부님께서 알려주는 하느님의 나라는 다른 물질도 아닌 성령을 통하여 우리들 마음에 부어주신 사랑으로 만들어집니다. 세상의 많은 유혹과 환난을 끝까지 견디는 인내와 수양을 실천합시다.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지금도 예수님의 말씀은 한 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고 참됩니다. 오늘 기념하는 김대건 안드레아 순교 사제와 함께 기도하며 먼 훗날 하느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나누기를 청합니다.

말씀 한 줄

묵상한 줄



(오늘의 말씀 중 마음에 와 닿는 구절과 짧은 묵상을 적어봅니다.)



아브라함 6

하느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실 때 연기 뿜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쪼개 놓은 짐승들 사이로 지나갑니다(창세 15,17). 구약성경에서 불은 하느님의 상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하느님만 제물 사이로 지나가시고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계약이 유지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느님께 달렸는데, 그분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이 계약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느님은 아브라함과 다시 계약을 맺으시는데, 그 계약의 표지로 할례를 명하십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운 계약의 표징이다.”(창세 17,11) 그래서 오늘날도 유대인 사내아이는 태어난 지 8일째에 할례를 받으며, 자기 몸에 새겨진 이 표지를 볼 때마다 하느님과의 계약을 기억합니다. 교회도 1960년까지는 예수 탄생 8일째인 1월 1일에 주님의 할례 축일을 기념했습니다.

그런데 할례는 에돔, 암몬, 모압을 비롯한 대부분 셈족과 페니키아인들, 이집트인들도 행했습니다. 기원전 29세기의 시리아 전사 조각상이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할례 증거이며, 기원전 24세기 이집트 벽화에도 할례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계약의 표지를 신체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기는 풍습은 고대세계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악수도 계약의 두 당사자가 손바닥에 상처를 내고 피가 흐르는 상태에서 손을 맞잡던 풍습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하느님과의 계약의 표지로 여겼기에 그 중요성은 다른 민족들의 것과 비교할 바 아닙니다.

하느님과 계약을 맺음으로써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사라이가 사라로 이름이 바뀝니다. 아브람은 ‘존귀한 아버지’를 의미하는 아카드어 ‘아부-라무’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의 아버지’라는 뜻이니 많은 후손을 볼 이에게 어울리는 이름입니다. 마찬가지로, 여왕이라는 뜻의 사라도 제 땅을 가지고 나라를 세울 민족의 어머니에게 어울립니다. 이처럼 아브라함과 사라 이름에는 하느님과 맺은 계약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의 이름에는 하느님의 이름 야훼의 철자 가운데 하나인 ‘헤’(ה)가 들어갑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계약을 맺을 때 계약 상대방의 이름을 자기 이름 가운데 끼워 넣어 자기가 누구와 계약을 맺었는지를 드러내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은 하느님과 계약을 맺었음을 드러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선조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신들이 하느님과 계약을 맺은 민족임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함원식 이사야 신부/ 안계 본당 주임)

אברהם
יְהוָ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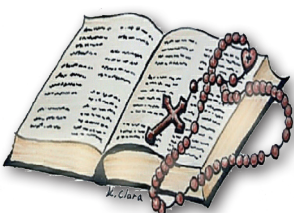
아브라함과 야훼

신앙의 두레박

교계제도

예수님의 구원행위를 이 세상에서 지속시키는 교회의 구조적인 측면을 ‘교계제도’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뽑으신 사도들의 복음선포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면서 공동체의 새로운 과제들을 수행할 봉사직분이 필요했습니다. 공동체의 관리와 감독의 직무를 맡은 주교, 공동체의 원로로서의 사제, 성찬의 봉사자로서의 부제 직무가 초대교회 안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이러한 직무는 사도들의 기도와 안수로 전해졌다는 표지였습니다. 그들은 공동체의 거짓 사도와 거짓 예언자들로부터 복음의 정통성을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과 공동체 구성원들의 은사를 식별하고 감독하는 역할들도 해나가게 됩니다.

(김요한 사도 요한 신부/ 춘양 본당 주임)





등 떠밀려서

권오심 안드레아 · 안동가톨릭문인회

자기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있거나 할까?

사람은 누구나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살아가고 있다. 주어진 환경 탓에 하기 싫은 일을 마지못해 하는 경우도 많다. 자기 자신 보다는 처자식을 위해, 부모형제를 위해 맡은 일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17년 전(2003년) 나도 정든 고향을 떠나 세속의 업을 따라 진주라는 곳으로 갔다. 어쩔 수 없이 누군가에게 등을 떠밀려 환갑을 넘긴 나이에 미지의 땅으로 살려 간다는 것은 두렵기도 하고 약간의 기대감에 가슴이 설레기도 했다.

“내가 과연 거기서 인정받으며 살 수 있을까?”

“내 노동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환경을 적절히 활용하며 살 수 있을까?”

걱정도 잠시,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고 두려움 없이 주어진 품성대로 위축되지 않으며 당당하게 살아가리라 다짐하면서 생존을 위한 업(약국)을 시작했다. 약사인 처제가 요청해서 왔고, 또 그가 준비를 잘해줬기에 큰 병원 1층에서 어렵지 않게 적응해 갔다. 원래 천성이 무뚝뚝해서 약국고객이나 성당 교우들에게 살갑게 대하지는 못했지만, 처(젤투르다)가 상냥해서 내 부족함을 상쇄시켜 주었고, 매일 바치는 묵주기도와 시간을 자주 내었던 성체 조배로 내적 평화를 느끼며 하느님의 말씀에 응답하려 노력했다.

레지오도 열심히 해서 3년 만에 꼬미시움 단장도

하고 꾸르실료 간사도 했다. 꼬미시움 단장 때는 25개나 되는 브레시디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꾸리아를 창설해 분가시켰고, 단원들에게 “고통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기도 했다. 또 등산로와 남강 공원을 따라 자연보호 캠페인도 펼쳤고, 시와 수필을 써서 본당 주보에 자주 실기도 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하기에 따라 몸 붙여 사는 사회로부터 상응하는 대접을 받기 마련이다.

철없는 아이가 아버지의 배려로 성장하듯이 내 안에 계시는 하느님의 특별한 사랑이 부족한 내 자신을 점진적으로 발전시키려 하였던 것이다.

그렇게 14년간의 진주생활을 뜻있게 마감하고 또 다시 등 떠밀리듯 안동으로 돌아오던 날 진주에서의 마지막 미사 때는 전 교우들 앞에서 작별인사도 하고 눈물의 배웅도 받았다.

돌이켜보면 진주생활도 하느님께서 나를 초대하신 것이었고 (그 초대에 나는 피동적으로 응했지만) 내 삶에 있어서 큰 의미와 목적을 가진 ‘인생 1막’이었던 것이다. 비록 내 자유의지로 선택한 것은 아니었지만, 하느님은 내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등을 떠미셨고, 그에 따름으로써 기대 이상의 보람을 거두고 정든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렇게 예상치 못했던 진주에서의 인생 한 마당을 마감하고 이제 다시 새로운 한 마당을 하느님의 이끄심에 따라 안동에서 열어가고 있다.

분도여행사 www.bundotour.com 정성을 다하는 성지순례 유럽 성모 발현지 순례 10월 15일 ~ 10월 27일 (13일) 390만원 (공동경비 포함) ☎ 02-852-8525	안동신협 가톨릭과 함께 하는 서민은행 대출(신용·담보),예금(비과세),공제 안동시 태사2길 48(안동의료원 앞) ☎ 054-859-1710	STEAK SOPHIA 스테이크 소피아 안동 최대 패밀리 레스토랑 스테이크,스파게티,피자 안동 홈플러스 3층 (구)올리에 자리 박금복 소피아 ☎ 054-859-9997	서울 프라임 치과 임플란트·교정·보철치료·치주질환 원장 김재권 미카엘 옥동사거리 ☎ 054-859-2879
4 가톨릭 안동	문경새재 임팩정가든 40년 전통 손두부전문, 능이버섯 한우두부전문 홍창식 안젤로 · 박순분 안젤라 문경읍 새재로 870번지 ☎ 054-571-2285, 054-572-0027	한즈커피 월영교점 맛있는 커피와 수제 디저트로 고객과 함께 합니다.(15일 이내 원두사용) 조태상 바르사 안동 1번지 월영교 앞 ☎ 054-858-3476	우리농 목성동 직매장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며 모두를 살리는 생명농산물 직매장입니다. 목성동 성당 입구 (가톨릭센터 뒤) ☎ 054-856-0127



안식

영원한 안식

그게 바로 구원인 게야,
거저 죽어지는 게 아니지,

우리 무거운 등짐을 끝내 지고 가야 해,
힘과 용기를 내야 하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마태 11,30)

글 · 그림 김시숙 에스텔

교구동정

성유축성 예식 및 사제 성화의 날



코로나19로 연기되었던 성유축성 예식이 6월 19일 목성동 주교좌성당에서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 미사중에 거행하였습니다. 이날 교구장 권혁주 요한 크리소스토모 주교님, 두봉 주교님, 안동 교구 사제단 참석하여 일년 동안 사용할 성유를 축성하고, 사제 서약 갱신식을 하였으며 그리스도를 닮은 사제로 성화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한국 전쟁 발발 70주년을 기념한 6월 25일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가 목성동 주교좌성당에서 거행되었습니다. 이날 미사를 주례하신 권혁주 요한 크리소스토모 주교님은 남과 북의 평화통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여 이 땅에 잃어버린 평화를 되찾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미사 중 주교님의 강론 말씀은 안동교구 유튜브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동제일안과
백내장, 녹내장, 망막, 안성형, 드림렌즈
원장 정재엽 토마 / 원장 서의태 임마누엘
안동시 대안로 107 신시장 태평약국 2층
☎ 054-855-7582~3

가인 재가 복지 센터
어르신들 낮 동안 보살펴 드립니다.
♥ 주간보호 ♥
손순이 세라피나
상주시 무양 1길 46
☎ 054-535-8090

CGV 안동
영화 「부활」이
7월 9일 CGV안동점에서
개봉합니다.
대표 : 이동철 (요한)
☎ 010-2565-5463

주보 광고 모집

1. 주보광고 모집 안내
[교구 내] 1회 3만원,
[타 교구] 1회 5만원
2. 단체 알림 광고 모집 안내
[교구 내] 4줄 무료(제목 포함),
[타 교구] 1줄당 5천원(제목 포함)
3. 문의: 안동교구청 사목국
054-858-3114~5

바오로딸 서원
안동시 서동문로 147
목성동 성당 입구
인터넷 서점: <http://www.pauline.or.kr>
☎ 054-859-6040

천주교 안동교구 봉안 경당
미사: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분양문의: 054-655-1781
세부내용: 안동봉안경당.com

『조선 선교에 바친 삶』
복자 박상근 마티아가 만난 갈레 강신부의 전기
가격 13,000원
문의 858-3111 ~3(안동교구청)



교구장 동정



7월 6일 ~ 7월 신앙교리위원회

축하합니다

- 영명축일** 7월 5일 정희욱 대건 안드레아 신부
- 서품축일** 7월 5일 이준건, 김진조, 최형규, 안영배 신부
7월 6일 한상덕, 조종울, 최장원, 황영화
이희복, 정철환, 김재형 신부
7월 7일 신기룡, 배인호 신부

기억합니다

7월 10일 유재준 신부 14주기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

2019. 12. 1 ~ 2020. 11. 28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들을 잘 지킵시다.

본당 및 교구 제단체의 '모임 및 회합' 재개

1. 본당, 교구 교육시설(농은 수련원, 우곡 홍유한 피정의 집 등) 사목활동

- 본당에서는 본당 신부님의 판단 아래 '모임 및 회합'에 대한 사목 활동을 재개하고 점차적으로 정상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일: 7월 첫째 주일부터

- 주일학교의 경우 어린이 미사를 재개할 수 있으며, 여건에 따라서 한 달에 한 번 부모님과 함께 어린이 미사를 하면서 적절한 때에 어린이 미사를 재개 할 수 있습니다.
- 재개여부를 결정할 때 아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가. 지역 사회의 감염 확산 정도

나. 필요성, 공간과 시간의 적절성(실내/외 여부, 거리두기를 위한 여건, 숙박 여부 등), 참가자, 숫자 등

- 모임, 회합 및 교육을 할 경우 일반 감염 예방 수칙을 준수합니다.

2. 교구 제단체 활동

단체 담당 신부가 교구청 관련 업무 담당 신부와 협의하여 실시합니다.

교 구

■ 어린이 미사 유튜브 방송 안내

※ 본당 미사에 참여하기 어려운 어린이들을 위해 교구 신부님들의 도움으로 일시적으로 어린이 미사를 유튜브로 방송합니다. 어린이들이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교사들과 부모님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업로드 일시: 토요일 오후 3시
- 유튜브 채널: 천주교 안동교구 Diocese of AnDong

■ 전산·회계 담당 직원 채용공고

- 지원자격: 가톨릭 신자(여성), 전산·회계 가능자, 자격증 소지자 우대
- 구비서류: 세례증명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 사본
- 문의: 교구청 사목국 054-858-3114
- 면접: 서류전형 후 개별 통보

제 단 체

■ 제90차 안동ME주말 신청안내

- 일시: 8.14(금) 19:00 ~ 16(일) 17:00(2박 3일)
- 장소: 농은수련원, 신청마감: 8. 9까지
- 자격: 혼인한지 5년 이상 된 부부 (짝교우, 비신자, 타종교인, 사제, 수도자 가능)
- 신청: 김좌중(M.콜베) 010-6580-8408, 천연화(베로니카) 010-6500-8408

기 타

■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올레, 미사, 기도, 강의)

- 1인 1실, 넓은 강당과 식당으로 거리두기 가능합니다.
- 대상: 개인, 가족, 본당 단체 등
- 문의: 064-796-9181
- 때: 7.27 - 29, 7.31 - 8.2

■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성소자초대

- 대상: 수도 생활과 해외 선교에 관심있는 35세 미만의 미혼여성
- 일시: 원하는때, 원하는곳 (미리연락)
- 문의: 010-9353-1773 노아 수녀

■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평신도선교사 모집

- 대상: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24 ~ 40세 신자
- 장소: 골롬반평신도선교사센터 (서울 동선동)
- 문의: 010-3817-0567 (노혜인 안나 선교사)